

문화교차학 협동과정

(Dept. of Xcultural Studies)

설치 과정 :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과 소개

본 협동과정의 운영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교수들과 관련전공분야의 협업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들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가용자원이 극대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타 대학 교수들과의 협동, 그리고 타 대학과의 자유로운 학점교류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단일 주제 관련 대학원 프로그램으로는 어느 대학에서도 향유할 수 없을 정도의 탄탄한 실질적 교육내용을 자랑한다.

본 협동과정이 주제로 삼고 있는 문화교차 현상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다루는 다양한 전공영역이 본 협동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삶”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학문적 종속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문제의식과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이 합쳐져서 “세계의 삶”이 가능하게 될 때 진정한 세계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교과과정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주제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개개인을 위한 교과과정의 구성은 매우 자유롭게 꾸밀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교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수업연한동안 이수할 교과목을 개별학생의 관심분야에 맞춰 선정 또는 개발하고, 이에 기초하여 강의개설계획을 세우고 집행한다. 물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론화와 연구방법 개발, 그리고 실용적 기술 획득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병행해 나간다.

교육 목표

21C가 단일문화체제에서 다문화체제로 변화해 감에 따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가 점증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정은 통합학문적 시각에서 문화교차현상을 중심으로 한국 및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세계사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전문 연구 교육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공 분야

전 공	개 요
감정과학 전공 (Science of Feelings Major)	감정과학은 고전 읽기를 통하여 문화교차학과가 그동안 구축해온 동서고금의 철학적 탐구를 관통하는 ‘정학’ 사상을 기초로 경험적 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생활전반의 현상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한다.
문화예술학 전공 (Cultural Study of Arts Major)	문화와 예술에 대한 담론의 형성이 표현기술이나 기법 그리고 콘텐츠 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문화교차적 의미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문화심리사회학 전공 (Cultural Socio-psychology Major)	사회학과 심리학은 전통적으로 사회구조와 개체적 차원의 심리 및 행동에 관한 연구에 노력하여 왔는데 이러한 사회구조와 심리 및 행동의 바탕에 깔려 있는 문화교차학적 의미체계를 연구한다.
한류문화학 전공 (Xcultural Study of Korean Style Major)	한국의 ‘정’ 문화 현상의 논리 구조를 동서고금의 사상 속에서 추출하고, ‘정’ 문화 전통이 한국사회의 성격을 형성하는 과정을 탐색하여 ‘정’ 문화가 어떻게 세계인이 즐기는 한류가 되었는지 탐구한다.

학과 운영내규

1. 학점취득

- 1) 수료에 필요한 학점 중 본 과정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에서 취득하여야 하는 학점은 석사과정 12 학점 이상, 박사과정 18학점 이상으로 하며, 나머지 학점은 관련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과 국내 및 외국의 타 대학(교)의 대학원 및 연구기관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에서 취득할 수 있다.

2. 선수과목

- 1) 타계열 출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학생에게는 필요에 따라 주임교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하위 과정의 교과목(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24학점)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2) 출신 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이 있는 경우,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출신대학에 따라 과목명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교과내용으로서 과목명이 다른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미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외국어시험

- 1)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는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준한다.
- 2) 박사과정은 제2외국어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4. 종합시험

- 1) 종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는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준한다.
- 2) 종합시험은 석사과정 2과목, 박사과정 3과목으로 한다.

5. 학위청구논문

- 1) 논문계획서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석사과정은 3차학기 개강 1주내, 박사과정은 4차학기 개강1주내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본심사 직전 학기말까지 논문지도 평가를 통과(pass)하여야 한다.
- 3) 논문예비심사는 본심사 학기 초까지 실시하며, 예비심사용 논문원고를 심사일 2주 전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위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단, 논문예비심사는 2004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4) 본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의 제출기한은 전기에 졸업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10월 초까지, 후기에 졸업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4월 초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5) 논문심사는 석사과정은 2회, 박사과정은 3회를 실시하며, 논문심사 날짜는 지도교수가 심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논문은 각 심사일 2주 전에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는 2003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본 변경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과과정표

◦ 전공 공통(Core Courses)

교 과 목		학점	강의	실습	수강대상
문화연구방법론	(Theories and Methods in Cultural Studies)	3	3	0	석·박사 공통
문화교차학시습	(Identification of Xcultural Studies)	3	3	0	
동서사상특징연구	(Characteristics of Eastern and Western Thoughts)	3	3	0	
서구문화이론고찰	(Seminar in Western Cultural Theories)	3	3	0	
동양사상전통	(Seminar in Eastern Thought Traditions)	3	3	0	
서양사상전통	(Seminar in Western Thought Traditions)	3	3	0	
동양고전강독	(Readings in Eastern Classics)	3	3	0	
서양고전강독	(Readings in Western Classics)	3	3	0	
현상학과문화교차학	(Phenomenology and Xcultural Studies)	3	3	0	
해석학과문화교차학	(Hermeneutics and Xcultural Studies)	3	3	0	
문화교차학특강	(Special Topics in Xcultural Studies)	3	3	0	
사회문화풍경론	(Social Culture Scape)	3	3	0	
문화교차학협동강의	(Team Teaching in Xcultural Studies)	3	3	0	
외래문화의수용과변형	(Adoption and Hybridization of Foreign Culture)	3	3	0	
개별과제연구	(Independent Study)	3	3	0	
사제공방	(Workshop)	3	2	2	
논문지도	(Thesis Research)	3	3	0	
도시와마을	(Building Urban Villages)	3	3	0	
일과놀이의교육학	(Education through Work and Play)	3	3	0	
근현대한국지성사	(The Flow of Thinking in Modern Korea)	3	3	0	
문화담론연구	(Seminar in Discourses on Culture)	3	3	0	
나다움의미학	(Aesthetics in the East and the West)	3	3	0	
문화연구와글쓰기	(Cultural Studies and Writing)	3	3	0	
한국정치사상과현실	(Korean Political Thought and Reality)	3	3	0	
한국사의입체적구성:	(Seminar in Korean History:	3	3	0	
단절과연속	Fragmentation and Continuity)				
아시아적변화양식	(Seminar in an Asiatic Mode of Change)	3	3	0	
동양고전의이해와오해	(Understanding Eastern Classics)	3	3	0	
서양고전의이해와오해	(Understanding Western Classics)	3	3	0	
동양고전체험	(Experience of Eastern Classics)	3	3	0	
서양고전체험	(Experience of Western Classics)	3	3	0	
영화로철학읽기	(Reading Philosophy with the Movie)	3	3	0	
문예체치유학연구	(Healing through Logos=Mousike=Gymnastike)	3	3	0	

◦ 감정과학 전공(Science of Feelings Major)

교 과 목		학점	강의	실습	수강대상
문화교차윤리학	(Xcultural Ethics)	3	3	0	석·박사 공통
정학	(Science of Feeling)	3	3	0	
사회현상속감정의논리	(Xlogical Understanding of Current Social Problems)	3	3	0	
고전속감정의논리	(Xlogical Reading of Classics)	3	3	0	
감정의이해와오해	(Understanding Feelings)	3	3	0	
감정과학글쓰기	(Writing in The Science of Feeling)	3	3	0	
몸으로배우는통합적감정교육	(Bodily Understanding of Emotions)	3	3	0	

◦ 문화예술학 전공(Cultural Study of Arts Major)

교 과 목		학점	강의	실습	수강대상
디자인과문화원형	(Design and Culture)	3	3	0	석·박사 공통
공간과문화	(Cultural Approach to Living Space)	3	3	0	
예술의사회사	(Social History of Arts)	3	3	0	
문화콘텐츠개발	(Developing Culture Contents)	3	3	0	
내러티브와문화연구	(Narrative and Cultural Studies)	3	3	0	
21C문화트렌드	(21C Cultural Trends)	3	3	0	

◦ 문화심리사회학 전공(Cultural Socio-psychology Major)

교 과 목		학점	강의	실습	수강대상
문화심리학	(Cultural Psychology)	3	3	0	석·박사 공통
종교와문화교차	(Religion at the Crossroad of Cultures)	3	3	0	
모더니즘과포스트모더니즘비판	(Critical Evaluation of Modernism and Postmodernism)	3	3	0	
문화와페다고지	(Culture and Pedagogy)	3	3	0	
자명교육학	(Theories on Education)	3	3	0	
한국사회와문화교차학적접근	(Xcultural Approach to Korean Society)	3	3	0	
철학적사유와코칭의실제	(Philosophical Coaching Practice)	3	3	0	

◦ 한류문화학 전공(Xcultural Study of Korean Style Major)

교 과 목		학점	강의	실습	수강대상
한국문화론	(Seminar in Korean Culture)	3	3	0	석·박사 공통
한국문학의사상적적응	(Topics on Korean Literary Thoughts)	3	3	0	
교차하는아시아	(Topics on the Changing Asian Interrelations)	3	3	0	
한류담론연구	(Discourse on Korean Style)	3	3	0	
한류와문화내러티브	(Seminar in Korean Style and Cultural Narrative)	3	3	0	

교과목 개요

◦ 전공 공통(Core Courses)

- 문화연구방법론(Theories and Methods in Cultural Studies)
문화연구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영역에서 연구 발전되어왔던 방법론과는 차별화된 “인간과학 (Human Science)” 방법론을 기본으로 수행된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간과학 방법론들의 적실성과 한계성을 고찰한다.
- 문화교차학시습(Identification of Xcultural Studies)
인문학, 사회과학연구에 있어서 “근대성” 이라는 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일 수 있다는 자각이 없이 동서고금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려는 데서 오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교차현상과 관련된 기존의 인문사회학 이론을 고찰하고 대안적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 동서사상특징연구(Characteristics of Eastern and Western Thoughts)
동양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사유의 틀과 가치 지향을 서양의 그것과 대비시키면서 그 특징을 포착하기

위하여 동서사상을 섭렵한다.

- 서구문화이론고찰(Seminar in Western Cultural Theories)
인류학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문화론적 접근을 포괄적으로 섭렵하며, 이와 관련된 분석 기술과 방법을 습득한다.
- 동양사상전통(Seminar in Eastern Thought Traditions)
동양의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일맥상통하는 사유의 방식에 대하여 일별하는 동시에 이것이 현대의 사유와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핀다.
- 서양사상전통(Seminar in Western Thought Traditions)
서양의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일맥상통하는 사유의 방식에 대하여 일별하는 동시에 이것이 현대의 사유와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핀다.
- 동양고전강독(Readings in Eastern Classics)
동양의 고전을 문화교차학적 시각에서 해석한다.
- 서양고전강독(Readings in Western Classics)
서양의 고전을 문화교차학적 시각에서 해석한다.
- 현상학과문화교차학(Phenomenology and Xcultural Studies)
“혼란”, “의미의 상실”, “이중가치” 등 문화교차적 실존에 대하여 현상학적으로 접근한다.
- 해석학과문화교차학(Hermeneutics and Xcultural Studies)
문화현상을 통한 사회의 이해는 기본적으로 “가시적” 현상의 해석에 의존한다. 해석은 기본속성상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현상의 고찰을 통한 사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해석”의 방법을 고찰한다.
- 문화교차학특강(Special Topics in Xcultural Studies)
주제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로운 포맷으로 문화교차의 현장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특정의 인물, 시대, 사상, 작품을 다룬다.
- 사회문화풍경론(Social Culture Scape)
건축은 사회적이며 문화의 종합적 사실이다. 도시와 건축문화는 한 사회의 풍경을 그린다. 이 강좌는 우리 문화 풍경을 앞뒤의 시간, 다른 지역성, 여러 인식의 겹침으로 그린다.
- 문화교차학협동강의(Team Teaching in Xcultural Studies)
협동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한 강좌에서 다양한 학문분야의 현안문제를 문화교차학적 입장에서 재조명한다.
- 외래문화의수용과변형(Adoption and Hybridization of Foreign Culture)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문화와 문화가 교차하는 가운데 외래문화가 원래부터 있던 문화와 어떻게 상호작용 하여 문화의 흡수, 변형,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이론적 논의와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 개별과제연구(Independent Study)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문화학적 탐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별지도 한다.
- 사제공방(Workshop)
본 강좌는 실습과목으로 다양한 전공에서 현장작업을 통하여 연구한다.

- 논문지도(Thesis Research)
연구과정에서 연구의 동기에 대한 기술을 강조하여 연구의 추동력으로 삼는 논문지도방식이다.
- 도시와마을(Building Urban Villages)
도시화는 인간의 소외를 가져온다는 사고와 사람은 끊임없이 ‘마을’을 동경한다는 사실을 대비시키면서 도시마을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 일과놀이의교육학(Education through Work and Play)
‘놀이하며 공부하기’와 ‘일하며 공부하기’ 철학을 개발한다.
- 근현대한국지성사(The Flow of Thinking in Modern Korea)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생각을 담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검토하여 근대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밝히고, 그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 문화담론연구(Seminar in Discourses on Culture)
일상생활과 문화연구에서 통용되는 문화의 의미를 검토하여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제 현상을 모방, 수렴, 공존, 충돌 등으로 설명하는 주장들은 문화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고, 문화의 본래 의미를 탐색한다.
- 아름다움의미학(Aesthetics in the East and the West)
미학이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학문이며, 그 아름다움은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내 본연의 모습을 이해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미학을 논하는 이유이다.
- 문화연구와글쓰기(Cultural Studies and Writing)
기존 학문의 글쓰기가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화연구의 글쓰기(특히 논문쓰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해본다. 주로 질적 방법론에 기대는 문화연구적 글쓰기에서 연구자(‘나’)의 자기성찰과 세계관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문제를 다층적으로 살펴본다.
- 한국정치사상과현실(Korean Political Thought and Reality)
전통사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인 또는 한국사회가 정치에 대하여 형성해온 사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실현가능성을 탐구해 본다.
- 한국사의입체적구성:단절과연속(Seminar in Korean History: Fragmentation and Continuity)
한국사를 기술함에 있어 분절적 역사 전개를 강조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한국사를 사건에 따른 분절이 아니라 삶의 연속선상에서 접근한다.
- 아시아적변화양식(Seminar in an Asiatic Mode of Change)
발전론적 역사관과 순환론적 역사관을 비교하고 아시아의 변화 속에 담긴 특수성을 고찰한다.
- 동양고전의이해와오해(Understanding Eastern Classics)
이 수업에서는 동양 철학 고전을 고대-중세-근현대로 나누고, 각 시기별로 엄선된 작품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읽고 확인한다. 이러한 시도는 우선 소위 철학 전문인들이 정리한 철학 공부를 지양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으로 우리 자신과 철학자의 직접적인 만남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철학적 훈련은 우리 스스로 원전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생각의 힘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지성의 힘을 길러준다.

- 서양고전의 이해와 오해(Understanding Western Classics)

이 수업에서는 서양 철학 고전을 고대-중세-근현대대로 나누고, 각 시기별로 엄선된 작품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읽고 확인한다. 이러한 시도는 우선 소위 철학 전문인들이 정리한 철학 공부를 지양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으로 우리 자신과 철학자의 직접적인 만남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철학적 훈련은 우리 스스로 원전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생각의 힘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지성의 힘을 길러준다.

- 동양고전체험(Experience Eastern Classics)

이 수업에서는 선별된 동양 고전을 직접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동을 정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본다. 이를 통해 고전이 우리의 일상에 살아 있음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 결과 생각의 바름이 무엇이며,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 서양고전체험(Experience Western Classics)

이 수업에서는 선별된 서양 고전을 직접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동을 정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본다. 이를 통해 고전이 우리의 일상에 살아 있음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 결과 생각의 바름이 무엇이며,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 영화로 철학 읽기(Reading Philosophy with the Movie)

영화는 있음직한 현실을 보여주며 다양한 철학적 화두를 제시하는 매체이다. 이 수업은 그러한 화두들을 가지고 각자의 철학적 견해들을 나누며, 보이는 현상 속에 감춰진 진리를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문예체치유학연구(Healing through Logos=Mousike=Gymnastike)

‘문예체(文藝體) 치유학’은 본래 좋은 감정이 자기의 좋음을 다시 확인하고 자기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배우는 학문이다. 이 학문의 요점은 매순간 새로운 감정이 자기의 영원한 진실로부터 자기의 새로움을 이해하는 ‘감정의 자기이해’이다. 따라서 ‘문예체 치유학’은 감정의 자기이해 안에서 자기의 분열을 스스로 치유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믿고 사랑하는 윤리학이다. 동시에 ‘文 Logos=藝 Mousike=體 Gymnastike’의 ‘=’을 확인하는 성스러운 배움이다.

- 감정과학 전공(Science of Feelings Major)

- 문화교차윤리학(Xcultural Ethics)

문화교차윤리학은 플라톤과 맹자의 가르침에 근원하고 있으며, 그 정점에는 스피노자의 윤리학(Ethics)과 퇴계의 성학(聖學)이 확립한 ‘감정과학’이 있다. 서양과 동양이 공유하는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배우고 생각하는 것이 문화교차윤리학이 지향하는 학문의 핵심이다.

- 정학(Science of Feeling)

소위 ‘이성’ 철학에 밀려 감정의 진실이 은폐되는 사태를 동서사상의 흐름 속에서 드러낸다.

- 사회현상속감정의논리(Xlogical Understanding of Current Social Problems)

시각자료를 섭렵하는 방식으로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제 사회문제가 감정의 논리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존 이론의 평가와 현장 연구에 적용하는 준비를 시킨다.

- 고전속감정의논리(Xlogical Reading of Classics)

시각자료의 학습에서 확인한 감정의 논리를 고전 읽기로 확장하여 탐색한다. 이 과정을 통해 동서고금의 사상가들이 바로 이 감정의 논리를 밝히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학습자가 이

미 훌륭한 사상가로서 삶을 살아왔다는 자신감을 얻게 한다.

- 감정의이해와오해(Understanding Feelings)

이 수업에서 우리는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이해가 무엇인지 구한다. 이 이해가 중요한 까닭은 행복한 삶의 기초이며 동시에 윤리적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16세기 동양의 퇴계 『성학십도』와 17세기 서양의 스피노자 『윤리학』을 읽는다.

- 감정과학글쓰기(Writing in The Science of Feeling)

이 수업은 감정 자체의 필연성을 배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감정과학은 감정 자체에 대한 이해를 외부 원인이 아니라 그 자신의 필연성의 기초 위에서 이해하기 때문이다. 즉 감정과학은 감정 그 자신에 의한 감정 연구이다. 이 이유 때문에 감정 과학은 우리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정 그 자신은 자신의 필연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자신의 감정 이해를 글로 써봄으로써 우리는 감정과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 몸으로배우는통합적감정교육(Bodily Understanding of Emotions)

몸으로 배우는 통합적 감정교육은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고전을 읽으며 확인한 ‘완전자인 나’를 체험을 통해 스스로 확인하는 수업이다.

- 문화예술학 전공(Cultural Study of Arts Major)

- 디자인과문화원형(Design and Culture)

- “디자인 요소로서의 문화”라는 입장에서 디자인 이론과 실재를 다룬다.

- 공간과문화(Cultural Approach to Living Space)

- 생활공간 구축양식을 관찰함으로써 문화교차의 순기능적, 역기능적 적응 양식을 분석한다.

- 예술의사회사(Social History of Arts)

- 예술작품은 시대와 사회의 정신을 담고 있다. 이러한 예술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탐구한다.

- 문화콘텐츠개발(Developing Culture Contents)

- 문화교차학적 이론을 현실에 적용한다.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문화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실용적 목적을 위해 개발에 적용한다.

- 내러티브와문화연구(Narrative and Cultural Studies)

- 21세기는 문화와 이야기의 시대라 불린다. 상상력과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이 교육의 키워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지식과 일상에 스며든 내러티브적 사고의 중요성을 공유한다. 특히 내러티브가 소통되는 마음의 작용에 대한 고찰은 문화연구의 핵심과제로 집중 탐구의 대상이다.

- 21C문화트렌드(21C Cultural Trends)

- 문화적 변천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문화의 심층구조를 밝힌다.

- 문화심리사회학 전공(Cultural Socio-psychology Major)

- 문화심리학(Cultural Psychology)

- 문화가 달라짐에 따라 심리의 작용과 실체가 달라진다는 학문적 자각이 일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문화적 차이가 자아개념, 사회개념, 동기유발, 윤리의식 등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 밝힌다.

- 종교와문화교차(Religion at the Crossroad of Cultures)
문화현상으로서의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문화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제 현상들을 분석한다.
- 모더니즘과포스트모더니즘비판(Critical Evaluation of Modernism and Postmodernism)
포스트모더니즘을 소개함에 있어서 모더니즘을 수용하듯이 무비판적으로 그 “비판성”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문화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능력을 습득한다.
- 문화와페даго지(Culture and Pedagogy)
문화적 전통이 다를 때 교육의 목표와 방법이 달라진다고 보고, 한국의 전통적 교육 목표 및 방법이 현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구한다.
- 자명교육학(Theories on Education)
자명교육학은 우리가 하늘에서 받은 몸은 고칠 것 없이 완전무결하며, 받은 그대로 말하며 행동하며 사는 것이 끝도 없이 즐거운 세상임을 확인하는 학문이다. 자명교육학은 현대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해석교육학(또는 수양교육학)의 단계별 성장론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해보며 사람을 가르치고(敎) 기르는(育) 진정한 방법론이 오직 ‘나’에 있음을 확인한다.
- 한국사회와문화교차학적접근(Xcultural Approach to Korean Society)
문화교차학적 패러다임을 한국사회 연구에 적용하여 사회학 연구의 적실성 문제를 해결한다. 특히 정치의 개념, 국가의 개념에 대하여 재조명하며 이에 따른 생각과 행위의 문제를 다룬다.
- 철학적사유와코칭의실제(Philosophical Coaching Practice)
동서양 고전 속에 담긴 존재 이해 방식과 인식 계발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질문법을 연습함으로써 철학적 사유와 코칭적 소통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한류문화학 전공(Xcultural Study of Korean Style Major)

- 한국문화론(Seminar in Korean Culture)
한국, 한국인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하여 문화론적으로 접근한다.
- 한국문학의사상적적응(Topics on Korean Literary Thoughts)
한국문학의 특수성이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사상적 변천과 적응양식을 보였는지 작가, 작품, 평론 등을 통해 고찰한다.
- 교차하는아시아(Topics on the Changing Asian Interrelations)
세계화속에서 점차 의미를 더해가고 있는 아시아 내의 교차가 가지는 특징을 물질, 문화적 교류와 교차의 차원에서 고찰한다.
- 한류담론연구(Discourse on Korean Style)
글로벌시대 문화현상으로서 한류를 만들어낸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보편과 특수성의 맥락에서 접근한다. 한류를 둘러싼 다양한 문화담론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한류의 문화적 비전을 탐색해본다.
- 한류와문화내러티브(Seminar in Korean Style and Cultural Narrative)
한류문화의 핵심축인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대표적 문화콘텐츠인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소설 등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정(情)과 한(恨), 그리고 평화의 미학을 내포한 한류문화 내러티브의 특징을 집중 탐구한다.